

## [보도자료] 쿠팡, 한라봉 등 국산 만감류 20톤 매입으로 제주 농가 지원

2026. 3. 17.



고일학 제주남원농협조합장

- 제주조공법인과 협력해 천혜향·한라봉 선제적 매입 농가 재고 부담 덜어
- 20일부터 사흘간 ‘2026 로켓프레시데이’ 통해 만감류 집중 할인
- “수입 확대, 소비 침체 2중고 제주 농가에 버팀목 될 것”

2026. 03. 17. 서울 – 쿠팡이 판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제주 농가를 지원한다.

쿠팡은 제주조공법인(이하 제주조공)과 손잡고 대규모 만감류 할인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쿠팡은 저가 만다린의 국내 공급이 늘어나면서 상품가격 하락, 소득 감소 위기에 놓인 제주 농가를 돕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만다린이 주로 수입되는 시기가 제주산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등의 출하시기와 겹쳐 지역 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이번 제주 농가 상생 기획전은 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최대 신선식품 행사 ‘2026 로켓프레시데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쿠팡은 이번 행사를 위해 제주 천혜향과 한라봉 등 만감류 약 20톤을 선제적으로 매입해 산지 재고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제주산 만감류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소비 촉진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규모 행사를 위해 제주조공은 지역 농가와 협의해 안정적인 산지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만감류를 구성했다. 쿠팡은 맛과 신선도가 뛰어난 제주산 만감류를 할인가에 새벽배송으로 선보인다.

박진석 제주조공 대표는 “수입 과일 급증으로 재고 부담이 커졌던 농가들이 로켓프레시의 신속한 물류망과 탄탄한 고객층 덕분에 시름을 덜게 됐다”며 “판로 걱정 없이 고품질 과일 생산이라는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쿠팡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도내 19개 지역농협이 출자해 만든 제주조공은 감귤을 비롯한 제주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오재근 만당농장 대표와 어머니 현정식 농부

제주 현지 농가들은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 속에서 쿠팡을 통한 판로 확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고일학 제주남원농협 조합장은 “무관세 수입산 공세로 국산 과일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쿠팡의 전국 단위 판로 확보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향을 재배하는 오재근 만당농장 대표 “수입 과일로 위축된 소비 시장에서 이번 기획전이 국산 만감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가 경영 안정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수입 과일 공급 확대와 소비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제주 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제주조공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스마트팜 기술과 농민들의 장인정신으로 길러낸 제주 만감류의 우수한 품질을 경험하고, 우리 농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는 고객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로켓프레시데이에서 고물가 상황 속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선식품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할인 혜택을 병행한다. 평일 오후 2시마다 삼겹살, 계란, 닭가슴살 등 필수 식재료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선착순 특가 코너를 운영한다. 또한 딸기, 바나나, 토마토 등 인기 제철 과일과 그릭요거트 같은 로켓프레시 스테디셀러 품목들은 요일별 릴레이 특가로 판매한다. 하림, 풀무원 등 총 13개 주요 파트너 브랜드가 참여하는 브랜드 데이 행사도 함께 연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